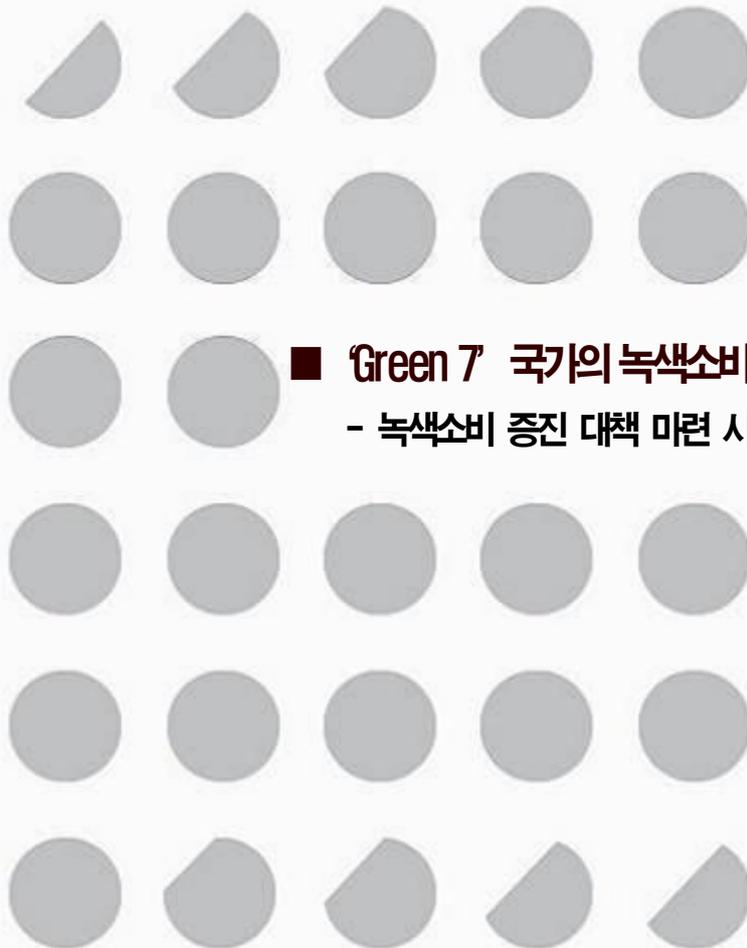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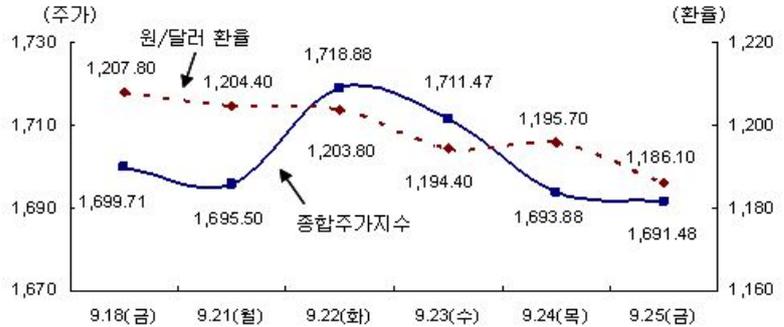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
- 녹색소비 증진 대책 마련 시급하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8~9.25)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특히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과제의 일부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 유 선 기 연 구 원 (3669-4142, sunkiy@hri.co.kr)

Executive Summary

□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 - 녹색소비 증진 대책 시급하다

1. 녹색소비의 중요성

녹색소비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자원 사용을 저감하는 소비”다. 녹색소비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이다. 녹색성장은 녹색 소비(수요)와 녹색생산(공급)의 조화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녹색소비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가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생태용량은 0.7gha(글로벌 헥타르)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생태발자국은 3.7gha로서 생태적자 규모가 1인당 3.0gha에 달하고 있다. 세계 평균 생태발자국 2.7gha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40%이상 더 쓰고 있어, '녹색소비'의 실천이 절실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소비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 상품구매액은 '03년 2,626억원에서 '08년 15,84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친환경 상품구매율도 '03년 31%에서 '07년 69%로 크게 늘었다. 녹색상품의 내수시장은 2012년도에 약3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60%인 2조원을 차지할 전망이다.

친환경제품의 40%가 사무용품과 사무용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바닥재 4.0%, 벽지 1.8%, 페인트 1.8%, 가구류 1.5%로서 5%에도 못 미쳐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의 녹색구매가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3.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정책사례('Green 7' 국가를 중심으로)

스웨덴 : 2006년부터 '지속가능한 가계 소비' 운동("Think Twice!")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만자 비율, 유기농 식품의 시장점유율, 신차의 배기가스 기준 등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 연간 800억불 규모의 공공 조달을 활용하여 녹색구매를 장려하는 액션플랜을 2007년부터 세워 시행하고 있다.

독일 : 1978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라벨 'Der Blaue Engel'은 독일 내에서 80여개 제품군, 950개 업체, 1만2천여 제품/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1998년부터 독일 국내의 모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있으며, 2008년1월1일부터 미세분진 배출이 과다한 차량은 대도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 2003년 시작된 영국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Changing Patterns")은 친환경 제품 개발, 고효율 생산 공정의 개발 등 산업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변화프로그램(MTS)을 통해 강제적인 에너지라벨링,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도심혼잡세,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 1999년 비엔나市는 'Eco Buy Vienna'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경제 품의 공공구매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녹색공공구매(GPP) 분야 성공사례 로 소개된 바 있다. 아울러,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및 CO2 배출이 적은 차 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 1995년부터 '그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인증기업의 에너지, 용 수, 원자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계의 에너지사용 및 CO2 배출 감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 2009년7월부터 건축물 에 에너지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사용량을 토대로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 : 2005년 녹색소비 활성화전략(*Getting More and Better from Less*)을 발표 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기술의 개발-사용을 촉진하고 관 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와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등 급제를 도입했으며, 2008년1월부터 CO2 배출에 따른 자동차稅 부과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 2007년부터 연간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중앙정부 조달을 2010년까 지 100% 지속가능한 녹색구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별 발전단가에 대해 최대 10년간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자동차稅 및 도로稅 차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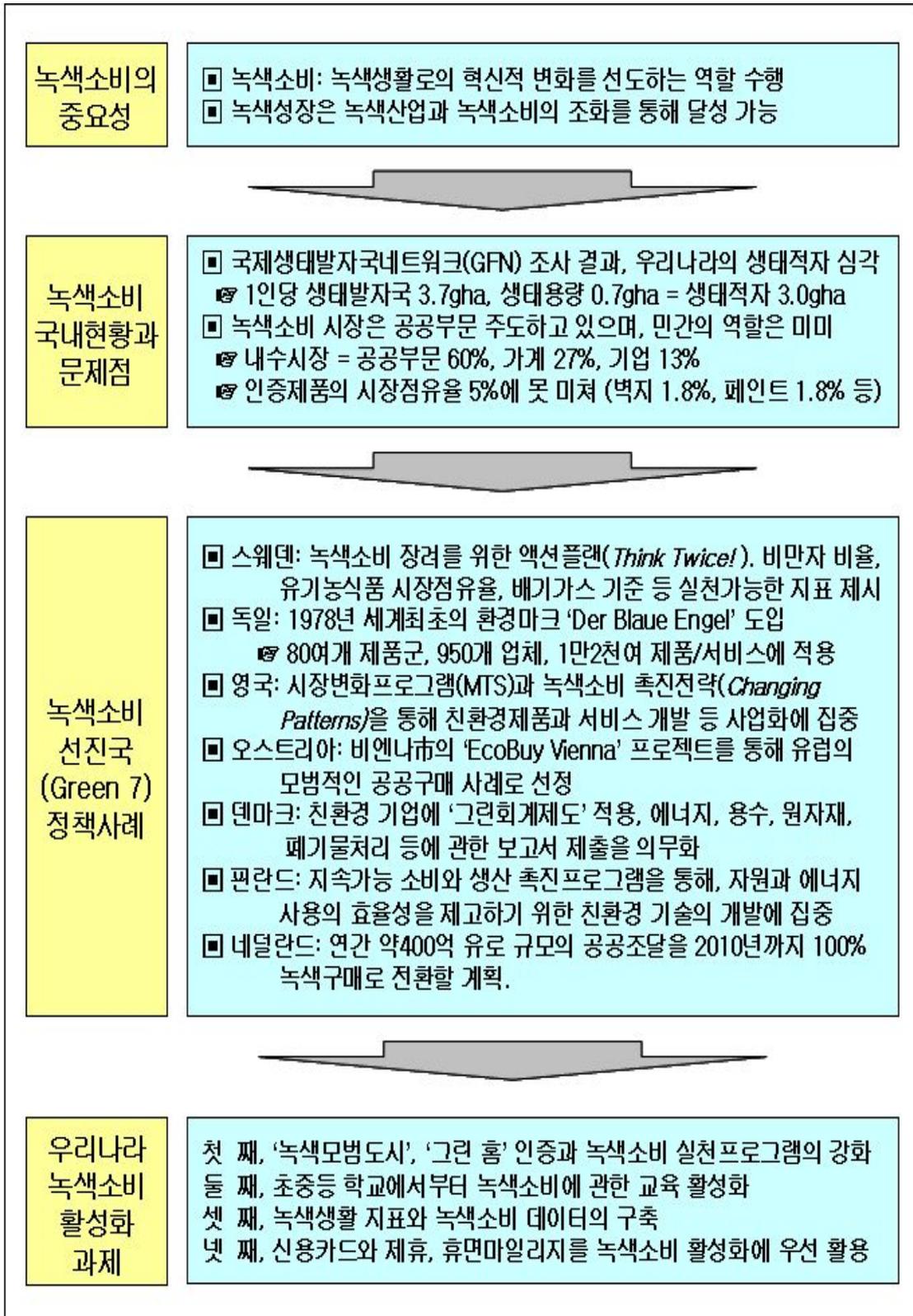
첫째, '녹색모범도시', '그린 홈' 인증 등 녹색소비 실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 요하다. 민간의 녹색소비 실천이 미흡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와 가정의 녹 색소비 표준을 도출하고 장려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녹색소비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친환경 제품과 녹색 소 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녹색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녹색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녹색생활의 지표 개발과 녹색소비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아울러, 친환경제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바코드 및 카드단말 기와 연동하여 녹색소비 실태를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녹색소비 활동에 그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넷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활용해 녹색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즉, 카드社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조를 통해 해마다 버려지는 1천억원 가량의 신용카드 마 일리지를 친환경제품의 소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전략 >



1. 녹색소비의 중요성

○ 녹색소비¹⁾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자원사용을 저감하는 소비행태"로 정의

- 녹색소비의 구성단계별 내용은 정보탐색단계에서는 녹색정보의 확인, 구매단계에서는 친환경제품의 구매, 사용단계에서는 제품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폐기단계에서는 수선 및 재사용, 분리배출, 재활용 등으로 이루어짐

< 녹색소비의 내용 및 관련 제도 >

소비의 구성	주요 내용	관련 산업 및 제도
정보탐색 단계	- 소비규모 감축 및 절약 -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 녹색정보 확인	탄소라벨, 탄소배출표지, 저탄소인증, 환경마크
구매 단계	- 유기농·에너지고효율 제품, 친환경차 구매 - 친환경포장제품 구매, 장바구니 사용	그랜패키지, 유기농산물, 하이브리드차, 그린마일리지, 그린스토어, LED조명, 저탄소 신제품, 녹색구매네트워크
사용 단계	- 제품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 자전거, 카풀 등 에너지절약 수송수단 활용	에너지절약습관, 탄소마일리지 신재생에너지소비, 에너지가격합리화,
폐기 단계	- 수선 및 재사용 - 분리배출 및 재활용(리사이클링) 참여	재활용, 녹색가게(재활용 전문)

자료 : 배순영(2009.5)을 참고로 제작성.

○ 녹색소비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선도할뿐만아니라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

-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녹색기술의 개발보다 누구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녹색생활이 더 중요”²⁾하며, 녹색성장은 공급(또는 생산) 측면과 수요(또는 소비) 측면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달성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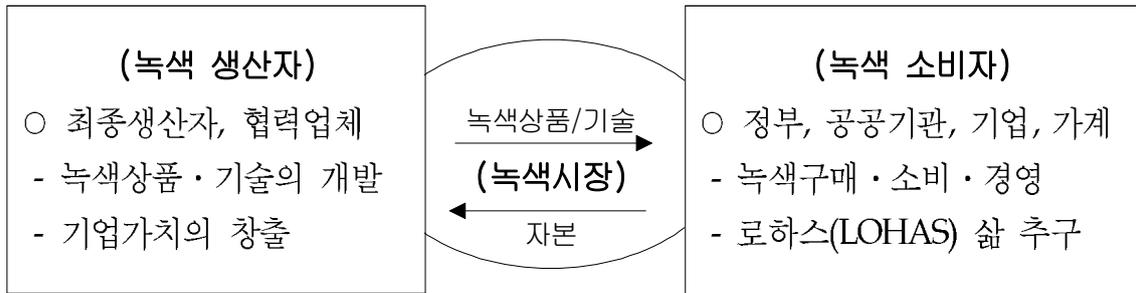
1) 녹색소비(green consumption)보다는 지속가능소비(sustainable consumption)가 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녹색소비는 지속가능소비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환경지속성과 사회적 건전성을 더 강조하는 개념(배순영,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의 역할과 과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발표자료(2009.5)).

지속가능소비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위협하지 않도록 서비스와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 쓰레기와 오염원의 배출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유독물질의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를 지칭함(1994년, 오슬로 ‘지속가능소비 심포지움’).

2)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8월10일 라디오연설 중에서.

- 녹색소비는 녹색생활의 정착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녹색화와 국토공간의 녹색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 녹색생산과 녹색소비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 >



자료: 문승식(2009.4)을 참고로 재작성

- **상품의 구매時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들도 갈수록 녹색소비와 녹색경영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 “구매시 제품의 친환경성 고려”라는 응답이 2000년 조사에서는 65.5%였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75.2%로 증가했으며, “품질이나 가격이 불리해도 녹색상품 쓴다”는 응답이 2008년 조사에서 20.0%에 달함

< 지난 8년간 녹색소비 트렌드의 변화 >

2000년 조사		2008년 조사	
환경문제 심각성 인지	98.8%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	90.9%
구매시 제품의 친환경성 고려	65.5%	구매시 친환경상품 사용	75.2%
사용후 조명 바로끄기	78.1%	사용후 조명 바로끄기	76.6%
품질 떨어지고 가격 비싸도 녹색상품 쓴다	14.0%	품질이나 가격 불리해도 녹색상품 쓴다	20.0%

자료 : 배순영(2009.5).

- 이처럼 갈수록 중요해지는 녹색소비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녹색소비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³⁾

○ 녹색소비 수준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생태발자국'⁴⁾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생태적자가 심한 나라로서 친환경소비의 활성화⁵⁾가 필요함

-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생태용량은 0.7gha(글로벌 헥타르)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생태발자국은 3.7gha로서 생태적자 규모가 1인당 3.0gha에 달함
- 세계 평균 생태발자국 2.7gha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40%이상 더 쓰고 있음

< 국가별 1인당 생태발자국 비교 (2005년) >

(단위 : 백만 명, gha)

구분	인구	생태발자국	생태용량	생태적자
세 계	6,476	2.7	2.1	-0.6
고소득국	972	6.4	3.7	-2.7
중소득국	3,098	2.2	2.2	0
저소득국	2,371	1.0	0.9	-0.1
아프리카	902	1.4	1.8	0.4
중앙아시아	365	2.3	1.3	-1.0
아시아태평양	3,562	1.6	0.8	-0.8
라틴아메리카	553	2.4	4.8	2.4
북미	330	9.2	6.5	-2.7
유럽	487	4.7	2.3	-2.4
한국	48	3.7	0.7	-3.0

자료 : GFN(2009), 문승식(2009)에서 재인용.

○ 우리 녹색상품의 내수시장은 공공부문이 60%를 차지하고, 가계 27%, 기업 13%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이 녹색소비를 주도하고 있음

- 2012년도의 녹색상품 내수시장은 약3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작년에 비해

3) 녹색소비의 실태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통계나 조사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생태발자국이나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친환경상품의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녹색소비의 실태를 추정하고자 함.

4) 생태발자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글로벌헥타르(gha)란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생태발자국 지수가 높을수록 생태환경의 훼손이 크다는 것을 의미.

5) 美내셔널지오그래픽社가 발표한 그린덱스(GreenDex)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활용 빈도는 비교대상 17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며, 친환경제품 구매빈도는 12위에 그침.

약1.4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2조 원, 가계 1조 원, 기업 6천억 원의 녹색소비가 이뤄질 전망

< 녹색상품의 내수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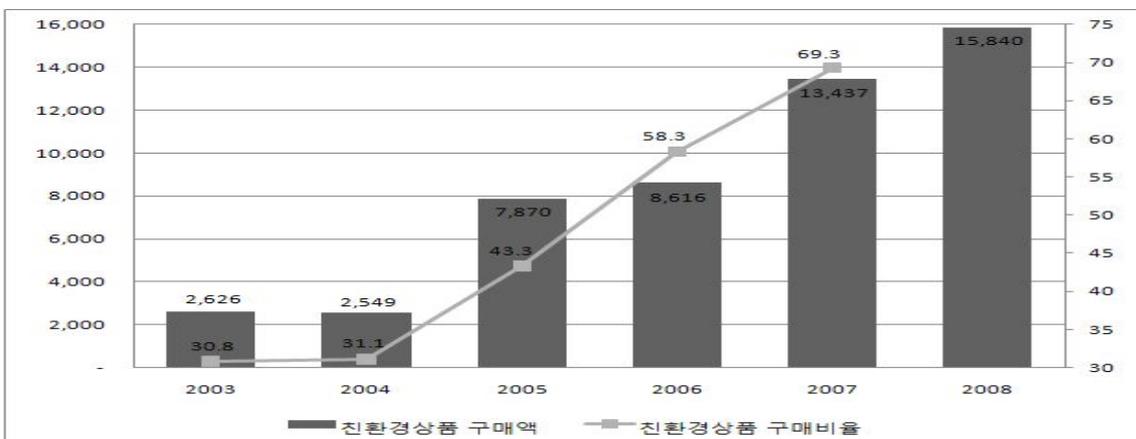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인증, 인증제품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친환경상품의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고, 인증품목도 편중되어 있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03년 2,626억원에서 '08년 15,840억원으로 6 배 이상, 구매비율은 '03년 30.8%에서 '07년 69.3%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함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추이 >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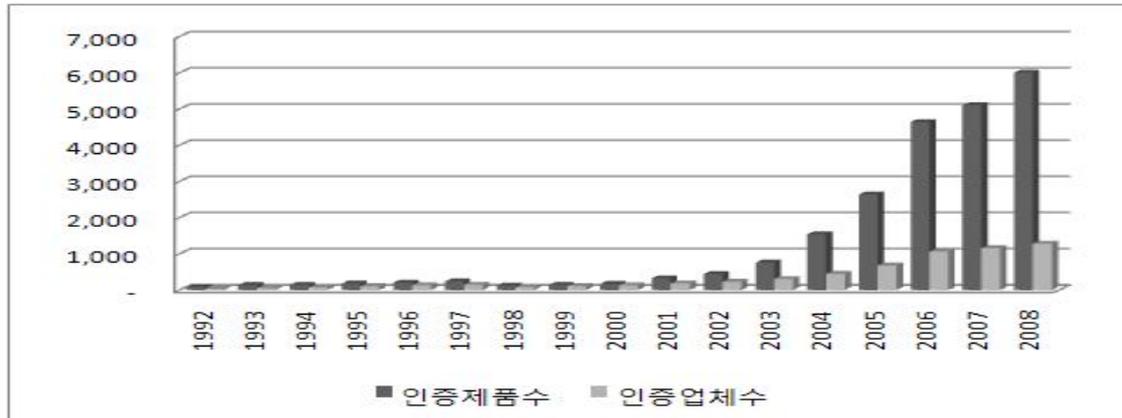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2004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 친환경 인증제품수도 2008년말 현재 6,005개로서 '04년말에 비해 약4배 증가했으며, 인증업체수는 작년말 1,281개로서 '04년말에 비해 약3배 증가함

< 친환경상품의 연도별 인증 추이 >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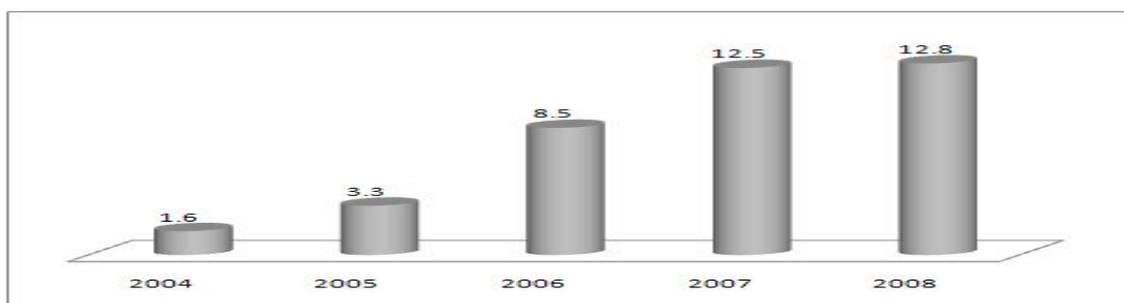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 인증제품의 매출액은 2008년도에는 12조8천억 원으로서, 2004년도의 1조6천억 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함.

< 친환경 인증제품의 매출액 증가 추이 >

(단위 : 조 원)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그러나,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데스크탑PC 31.1%, 노트북PC 21.8%로 비교적 높지만, 바닥재 4.0%, 에어컨 3.3%, 벽지 1.8%, 페인트 1.8%, 가구류 1.5%로 기타의 제품들은 5%에 못 미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미약한 상태

< 친환경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 현황 (2007) >

데스크 탑PC	노트북 PC	유류	종이 제품류	바닥재	에어컨	슬래그 재활용품	친환경 벽지	페인트	가구류
31.1%	21.8%	13.6%	5.6%	4.0%	3.3%	2.0%	1.8%	1.8%	1.5%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상품 인증업체 및 인증제품의 제품군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무용기기·가구제품이 40%, 주택·건설자재가 25.7%로서 특정 제품군(PC,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등)에 편중되어 있음.
- 그밖에, 복합용도 및 기타제품 14.2%,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11.4%, 가정용기기·가구 5.7%의 순으로 나타남

< 제품군별 인증업체수 및 인증제품수 >

(단위 : 개, %)

제품군별	업체		제품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410	26.1	2,308	40.0
주택·건설용자재·재료및설비	419	26.7	1,483	25.7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257	16.4	656	11.4
가정용기기·가구	45	2.9	327	5.7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19	1.2	41	0.7
산업용 제품, 장비	65	4.1	139	2.4
복합용도 및 기타 (프라스틱제품 등)	355	22.6	820	14.2
총 계	1,570	100.0	5,774	100.0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년6월말 현재).

○ 위와 같이, 녹색소비의 주체 중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2004년 법 제정이 후 활발해지고 있으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실천은 미미한 형편임

- 대한상의⁷⁾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지수는 53.13로 생각보다 낮은 편이며, 행동지수는 30.85로 더 낮은 형편임

7) 녹색성장위(2009, p.320)에서 재인용.

3.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Green 7') 정책사례

3-1. 유럽 'Green 7'의 녹색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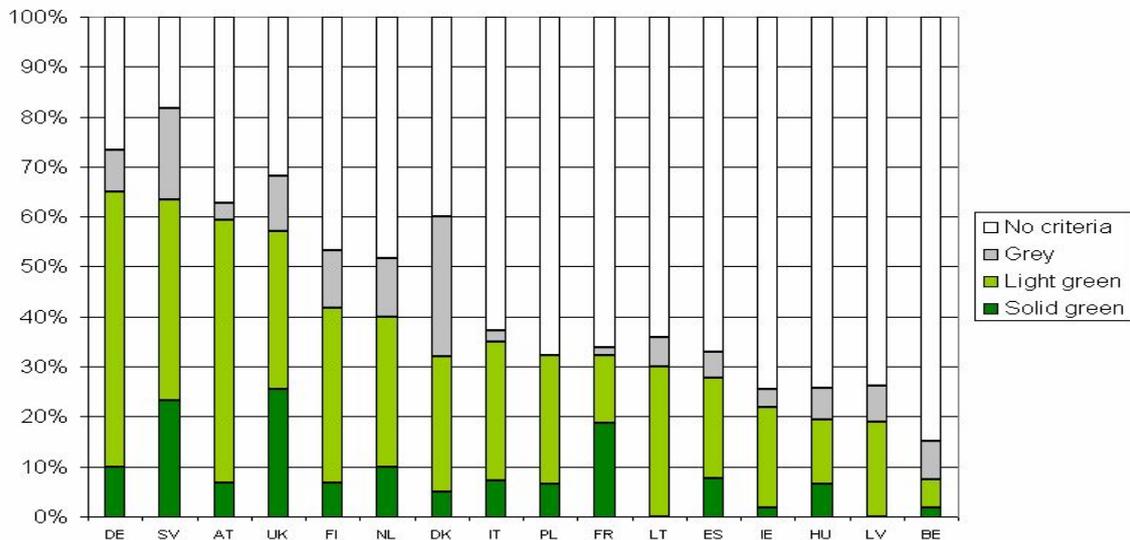
○ EU와 유럽 국가들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오랜 노력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

- 벨기에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 구매경험 비율이 90%까지 올라갔으며, 독일 소비자의 41%가 녹색소비를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⁸⁾

○ EU회원국 중 환경기준을 포함한 입찰이 40% 이상인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7개국('Green 7')

- 덴마크의 경우 공공구매에서 친환경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구매 중 친환경제품의 비중은 아직 파악되지 않음

< EU 회원국별 녹색구매 실적 >



자료 :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2006).

주 : 1. 각 회원국의 1천건 이상의 입찰 중 환경기준의 포함여부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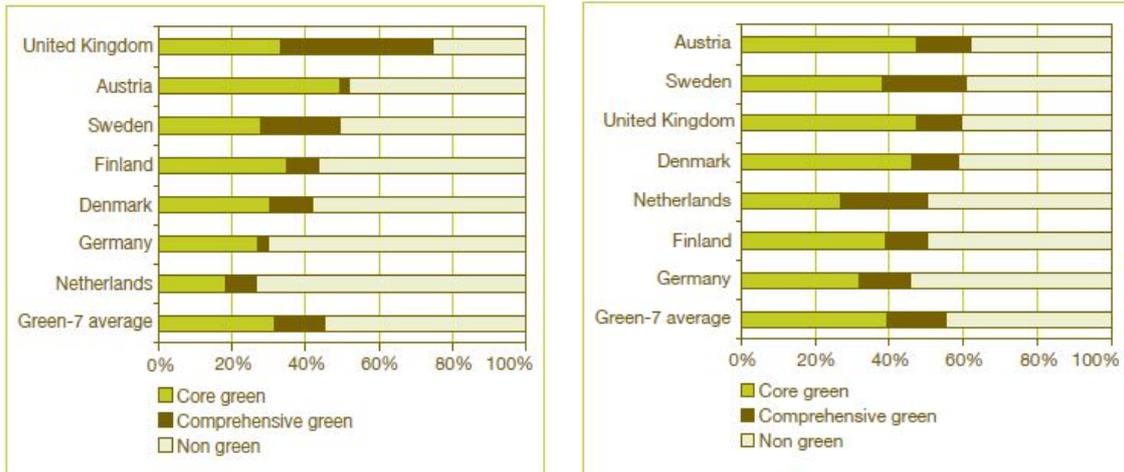
2. Solid는 3개 이상의 조건 충족, Light는 1개-3개 충족, Grey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3. DE(독일), SV(스웨덴), AT(오스트리아), UK(영국), FI(핀란드), NL(네덜란드), DK(덴마크), IT(이탈리아), PL(폴란드) 등

8) 국가별로 녹색소비 실태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지표가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녹색소비 활성화 시책을 최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에 비해 유럽은 20여년전부터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음.

- 녹색구매에서 앞서가는 유럽 7개국('Green 7')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Green 7'의 국가별 녹색구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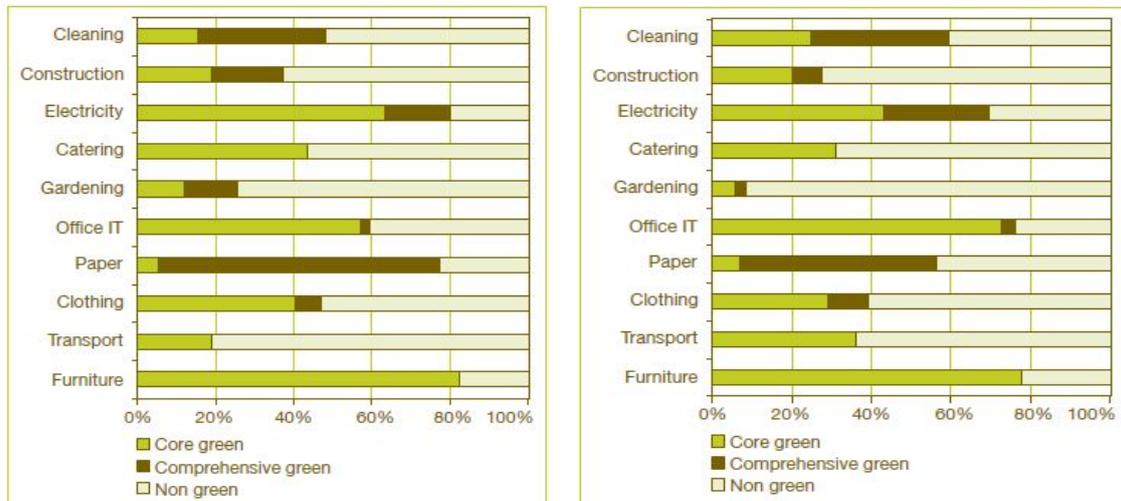


자료 : PWC (2009).

주 : 왼쪽은 금액 기준, 오른쪽은 건수 기준. Core는 핵심적 기준, Comprehensive는 선택적 기준.

- 'Green 7'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개 품목의 녹색구매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구제품, 사무용 전자기기, 종이, 전기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Green 7'의 품목별 녹색구매 비율 >



자료 : PWC (2009).

주 : 왼쪽은 금액 기준, 오른쪽은 건수 기준. Core는 핵심적 기준, Comprehensive는 선택적 기준.

○ EU회원국들은 다양한 친환경제품 인증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와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음

- ‘Blaue Engel’은 독일이 1978년 유럽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제품 라벨이었으며, EU 차원에서 1992년 도입한 Eco-Label(EU Flower)과 북유럽국가들이 1997년부터 도입한 Nordic Swan 등 **3대 라벨**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

< 유럽의 주요 환경마크 >

라벨명	성격	로고
EU Eco-Label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공산품에 적용	
Biogarantie	유기식품 및 섬유제품에 적용(벨기에)	
Agriculture Biologique	유기농산물 및 식품에 적용(프랑스)	
NaturePlus	친환경 건축자재에 적용(유럽)	
VIBE	친환경 건설을 위주로 하는 건축설계가, 건축업체, 건축전문가, 제조자, 판매자에 부여(벨기에)	
Demeter	친환경적 농업(국제적 라벨)	
EKO	자연식품, 친환경적 공산품에 적용(네덜란드)	
Eko Sustainable Textile	자연식품, 자연섬유제품(CEE 2092/91 또는 미국 NOP기준)	
Der Blaue Engel	친환경 공산품에 적용(독일)	
Agriculture Biologique	자연식품(EU 로고)	
Nordic swan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구의 친환경 브랜드로 공산품에 적용	

자료 : kotra(2008).

3-2 유럽 'Green 7'의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사례⁹⁾

○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사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유럽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 >

국가	주요 정책
스웨덴	- 친환경차량 및 대체에너지 사용 주택 구매시 보조금 - 공공구매부분 녹색소비 장려를 위한 액션플랜('07년~'12년) 시행
독일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 제공 - 태양열발전 설비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 세계최초의 환경마크('Der Blaue Engel')등 다양한 친환경 라벨 실시 - 공공구매시 다양한 환경기준 및 인증 적용
영국	- 런던 등 대도시 친환경 교통정책 실시 - 시장변화프로그램(MTS)을 통해 에너지 라벨링, 에너지 효율성 요구 및 업계의 자발적 조치 유도
오스트리아	-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및 CO2 배출이 적은 차량에 대해 지원금 - DPF 미장착 및 CO2배출 많은 차량에 대해 부담금 부과 -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 실시 - 공공구매 분야에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비엔나시 등은 자체 그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
덴마크	- 친환경 승인 기업에 대해 '그린회계제도' 등 적용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백조마크(Nordic Swan) 시행
핀란드	- 2005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을 위한 국가비전 새롭게 제시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자동차세(등록세, 연간운행세) 부과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도입
네덜란드	- 그린에너지 구매촉진 보조금 및 세제감면 제공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촉진을 위한 자동차세 및 도로세 차등 - 지속가능 공공구매 추진 ('07년~'10년까지 100% 그린구매)

자료 : kotra(2008), Jozsef Szlezak(2007), Sweden MAFCA(2005)를 참고로 제작성.

(1) 스웨덴 : "Think Twice"(2005)

- 2006년 '지속가능한 가계 소비' 운동(Sustainable Household Consumption; Think Twice!)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

- 지속가능한 가계소비와 실천 여부를 측정할수 있는 8개 지표 제시: ①비만자 비율, ②유기농 표시 식품의 시장점유율, ③가정과 빌딩의 전력사용량,

9) 이하의 내용은 kotra(2008)과 Jozsef Szlezak(2007), Sweden MAFCA(20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④가구당 쓰레기 배출량, ⑤가구당 CO2배출량, ⑥신차 배출가스 기준, ⑦대중교통 접근성, ⑧공공서비스 접근성

- 공공구매 부문 녹색소비 장려를 위한 액션플랜(2007~2010년) 시행 : 친환경 공공조달 (규모 : 연 5,000억SEK(약 800억불))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산업들을 육성
 - 공공부문 차량의 35%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공공부문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공공부문 전구의 50%는 에너지 A등급으로 대체
- 친환경 차량 촉진 정책 : 친환경 차량 구매 시 10,000SEK(약 1,700불)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및 혼잡통행료 징수에도 혜택을 제공
 - 등록 차량의 약 18%가 친환경 차량이며, 판매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
- 대체에너지 활용 촉진정책 : 개인주택이 등유 또는 전기 난방을 지열,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시스템으로 교환할 경우 보조금 지원. 예를 들어, 태양열 시스템으로 교체시 보조금 규모는 2.5SEK/kWh(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7,500SEK보조, 아파트의 경우 최대 5,000SEK 보조)정도

< 스웨덴 녹색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요 >

주관부서	조직	시기	방향	달성 목표 (例示)
농업식품 소비자부	관련부처 통합조직	2006년	- 가계 친환경소비 촉진 - 실천가능한 지표 제시	- 유기농식품 시장점유율 -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 - 가구당 CO2 배출량 - 대중교통 접근성

자료 : Jozsef Szlezak(2007).

(2) 독일¹⁰⁾

-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 : 독일은 EU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에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

10) 독일과 덴마크는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과 같이 단일한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상향식(bottom-up)으로 분산형 추진 방식을 선택(Jozsef Szlezak(2007), p.5).

- 에너지 효율 등급은 A부터 G까지 표시하며, A등급이 가장 효율성 좋음.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85% 이상이 에너지 효율등급을 고려하고 있음
- 2010년 신에너지 레이블 도입 : 2011년부터 EU차원에서 신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기존의 에너지라벨 기준을 A-20, A-40, A-60, A-80~G까지로 더 세분화. 여기서 사용되는 20, 40, 60, 80 등의 수치는 해당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비교 가능한 동등급의 모델보다 20~8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음을 의미. 기술의 혁신성을 반영하기 위해 매 3년마다 등급을 재조정
-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 EU의 CO2 배출량 (2010년까지 목표 : 120g/km)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CO2 배출량을 확인하도록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매장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
 - 2008년 1월 1일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세분진 배출량의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해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도시 진입을 금지시킴
- 친환경라벨 : 독일은 1978년 세계에서 최초로 친환경 라벨을 도입한 국가. 'Der Blaue Engel'은 친환경 제품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 내에서 80여개 제품군, 950개 업체, 1만2천여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 중

< Der Blaue Engel 적용 분야 >

마크	분야	제품군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토너, 종이, 휴대전화
	건축	건설기계, 건축자재, 바닥재, 페인트 등
	주거 및 가정용품	전지, 손건조기, 난방용품, 유리 제품, 가구, 램프, 치약 등 위생용품
	차량 및 차량용품	세차장비, 버스, 타이어
	정원용품	정원용 톱, 화분, 비료 등
	기타	폐플라스틱 활용제품, 무연제품, 폐고무 활용제품 등

자료 : Kotra(2008)

(3) 영국 : “*Changing Patterns*”(2003)

- **녹색소비 활성화 비전(*Changing Patterns*) 발표**: 2003년 환경식품농업부와 통상산업부의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Changing Patterns*) 발표, 2005년 ‘지속가능 발전계획’(*Securing the Future*)에 포함
 - ①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②친환경 고효율 생산과정의 개발, ③환경 부담을 줄이는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지향함
 - 11세 이하 소아비만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동결, 2020년의 주택 에너지효율을 2000년 대비 20% 개선, 2010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2000년 대비 12% 개선, 생활쓰레기 25% 감축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 영국 정부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 도심 혼잡세, 주차비를 징수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 차량’ 판매를 촉진. 신차 등록 차량 중 친환경 성향인 초미니, 미니, 소형 차량의 비율이 7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
- **시장변화 프로그램(Market Transformation Programme)** : 시장변화 프로그램(MTS)을 통하여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 에너지 효율성 요구 및 업계의 자발적 조치 등을 유도하며 그린구매 및 공급을 장려
 -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 부착 :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세척기, 조명기구 등 가전제품에 전력소비량 및 성능 정보 제공하는 에너지 라벨링
 - 강제적 에너지 효율성 요구 : 냉온방기 및 냉장고, 전열, 조명기구 등 에너지 소모제품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성을 요구

< 영국 녹색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요 >

주관부서	조직	시기	방향	달성 목표 (예시)
환경식품 농업부 + 통상산업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2003년	- 환경부담을 줄이는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 고효율 생산과정 개발	- 11세 이하 소아비만 비율 동결 - ‘20년 주택 에너지효율, ’00년 대비 20% 개선 - ‘10년 대중교통 이용율, ’00년 대비 12% 개선. 생활쓰레기 25% 감축

자료 : Jozsef Szlezak(2007).

(4) 오스트리아 : "*Building our Future*"(2002)

- 공공구매 분야에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 대상 분야는 사무용품, 건축자재, 에너지, 세정·정화, 건물 내부 장치·인테리어, 식음료 및 생활용품, 차량 및 교통, 자연 경관 및 공원 관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 비엔나市는 1999년 'Eco Buy Vienna' 프로젝트 시작. 그린구매 활동 촉진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과 市정부조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목표. 2003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Green Week 행사 때, 그린구매 분야 성공사례로 소개
-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및 CO2배출이 적은 차량 지원금 혜택 : 신규로 출고 디젤 차량 중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구입시 대당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 필터 미장착차량 구입시 1.5%(최고 300유로)의 사용부담금(NoVA)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함
- '녹색물류'를 위한 klima.aktiv 프로그램 시행 :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 시행. '녹색 물류'를 위한 총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원, 지원을 원화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관련 투자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증비자료만 제출하면 됨

< 주정부별 태양열 난방설비 보조금 현황 (2009년 4월기준) >

오스트리아 지방정부	정부지원금(유로)	비고
니더외스터라이히	3,480	
티롤	3,000	
부르겐란트	2,800	
포랄베르그	3,325	700유로는 에너지 효율에 따른 변동분
오버외스터라이히	2,600	
빈	2,500	
케른텐	1,600	
슈타이어막	1,250	
잘츠부르크	2,200	1,150유로는 에너지 효율에 따른 변동분

자료 : Austria Solar.

주 : 태양열 집열판 면적 15m², 설비비용 1만 1600유로 기준.

(5) 덴마크¹¹⁾

- 친환경 승인 기업에 '그린 회계제도'등 적용 : 덴마크 정부는 친환경 승인 기업에 엄격한 환경보고서 제출 요구. 해당 보고서에는 EU의 요구사항인 '그린 회계 제도'와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제도' 포함
 - 그린 회계제도는 1995년에 처음 도입. 친환경 승인 기업들의 매년도 에너지, 용수, 원자재,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덴마크 환경보호청에 보고
 - 'PRTR제도'는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목적
- 녹색건설정책(건설업계의 에너지 및 CO2배출량 감소, 친환경자재 사용): 덴마크시장의 특성상 신규보다는 리모델링시장이 주요함. 리모델링時 친환경·저에너지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

<덴마크 건축 의무적 감축 내용>

시행연도	총 에너지 사용량(신규빌딩)	난방에너지(1m2기준)
2006년		5.5리터 이하의 오일
2010년	최소 25% 저감	4.2리터 이하
2015년	추가 25% 저감	3.0리터 이하
2020년	추가 25% 저감	

자료: kotra(2008).

- 2009년 7월부터 건물 에너지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등급 표기 의무화. 평가등급은 A~G까지이며, 고효율 주택건물일수록 A에 가까우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
- 기타 : 2020년까지 녹색운송시스템 구축. 매년 1500ha의 자연을 보존하는 환경보호 2020계획. 녹색성장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10억 DKr.(약 1억 3000만 유로)을 에너지 연구에 투입. 그린산업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공해 배출과 관련된 세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

11) 덴마크도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상향식(bottom-up) 분산형 추진 방식을 선택(Jozsef Szlezak(2007), p.5)

(6) 핀란드 : “Getting More and Better from Less”(2005)

- **녹색소비 활성화 비전(Getting More and Better from Less) 발표:** 2005년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을 위한 새로운 국가프로그램을 발표함
 - 위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해 정부, 업계,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선발한 28명의 위원으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위원회’(National SCP Committee; KULTU Committee)를 2003년부터 구성함
 - ①제품과 서비스의 생애주기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 ②환경관련 교육을 강화, ③친환경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한다는 3가지 목표와 73개의 실천계획을 제시함
 - 2015년까지 50인 이상 작업장에 에너지고효율 시스템설치, 공공부문 녹색구매 비율 제고, 공공부문의 유기농식품 비율 매년 10~15%씩 제고

- **CO2 배출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2008년1월부터 자동차 구입시에 내는 세금(등록세)과 해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연간운행세)의 기준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정해짐. 기존 자동차세에 비해 1/6정도 세수가 감소되며, 소비자들은 작고 연비가 좋은 디젤차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도입 :** 냉장고, 냉동고, 전기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램프,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실시. A에서 G까지의 등급이 있으며, 2004년7월부터는 A+, A++ 등급이 도입돼 A 등급 제품 전력소모의 25%, 40% 감소시킬 때 부여

< 핀란드 녹색소비 촉진 프로그램 개요 >

주관부서	조직	시기	방향	달성 목표 (예시)
환경부 + 통상산업부	KULTU 위원회	2005년	- 에너지효율성 제고 - 환경관련 교육 강화 - 친환경기술 개발	- 유기농법 적용되는 농지 비율 2010년 10%, 2025년 25% - 2010년 교통수단 CO2 배출량 1990년 수준으로 유지

자료 : Jozsef Szlezak(2007).

(7) 네덜란드 : "Action Programme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2-03)

- 그린에너지 구매촉진 보조금 및 세제감면 제공 : 에너지별 발전단가에 대해 최대 10년간 보조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설비 설치 투자 시 전체 투자금액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EINP),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투자 시 최대 19%까지 세금을 감면(EIA) 등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촉진을 위한 자동차세 및 도로세 차등 : 2008년 2월 1일부로 에너지 소비수준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할인세, CO2배출량에 따른 도로세 차등 적용이 실시되고 있음.

<네덜란드 자동차 에너지 등급세율>

에너지 등급	2007년	2008년 변경세율	등급기준(평균대비)
A	1,000유로 할인	1,400유로 인하	20% 이상 절감
B	500유로 할인	700유로 인하	10~20% 절감
C	-	-	0~10% 절감
D	135유로 추징	400유로 추징	0~10% 증가
E	270유로 추징	800유로 추징	10~20% 증가
F	405유로 추징	1,200유로 추징	20~30% 증가
G	540유로 추징	1,600유로 추징	30%이상 증가

자료 : kotra(2008).

- 지속가능 공공구매 추진('07~'10년까지 100% 그린구매) : 국가주도로 그린구매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속가능 공공구매(DIP : Duurazame Inkoop Programma)프로그램'을 실시. 연간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중앙정부 조달을 201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그린구매로 실시. 지방정부 및 기타 정부 조달품은 2010년까지 50%, 2015년까지 100% 그린구매 달성을 목표
- 2007~2010년까지 자전거 활성화 정책(Meerjarenbeleidsplan Fiets 2007~10) : 암스테르담 자전거의 교통 운송량 37%이상 달성, 자전거 도시로서의 암스테르담 리포트 점수 7.5달성 (2006년 기준년 7.0)
 - 쉬운 접근성 : 시내외 곳곳 어디든 쉽게 이동
 - 지속가능성 :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주차 공간이 적게 듦
 - 무공해 :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공해가 없음

4. 우리나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유럽 'Green 7' 국가의 핵심 성공요인은 (1)환경마크를 통한 올바른 상품 정보 제공, (2)공공부문의 녹색구매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3)친환경 세계 개편을 통한 가격규제, (4)민간의 자발적 녹색소비운동 등 4가지로 요약

- (1)독일은 이미 1978년부터 환경마크(Blaue Engel)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장려함
- (2)네덜란드는 녹색구매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도 공공구매를 녹색소비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3)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초에 친환경 세계개편을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배출가스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여하고 있음
- (4)핀란드,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친환경상품 인증과 공공부문 녹색구매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친환경 세계개편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하에서는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

첫째, '녹색 모범도시' 콘테스트를 통해 녹색생활로의 혁신을 유인

- 독일과 일본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환경수도 콘테스트¹²⁾가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우리도 민간부문의 녹색소비와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녹색 모범도시' 콘테스트를 실시

12) 김선희,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와 환경수도 콘테스트', 2008

둘째, '그린 홈' 인증과 녹색소비 실천 프로그램의 강화

- 녹색소비의 실천 수준이 낮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미나마타市처럼 가정의 녹색생활 표준을 만들어, (가칭)'그린 홈' 인증을 등급별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事例) 日本 미나마타市, 1999년 가정용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도입

주민들의 환경보호와 녹색구매 활동을 독려. 각 가정에서는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환경보전의 내용을 선언하고, 어린이들은 에너지절약, 주부들은 친환경상품의 구입 등으로 실천지침을 세우고 행동. 이런 결과를 청년회의소와 비영리단체가 심사하여 시장이 인증. 상당수 주부들이 환경가계부 작성.

셋째, 초중등 학교에서의 녹색소비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필요

- 독일과 영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¹³⁾에 따르면, 친환경제품과 녹색 소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녹색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소비자들의 녹색제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몸소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넷째, 녹색생활의 지표와 녹색소비에 관한 데이터(DB) 구축부터 시작해야

-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에 관한 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그래야, 서로의 녹색소비 수준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친환경제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바코드 및 카드단말기와 연동하여 녹색소비 실태를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 이를 통해 녹색소비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됨

13) Wagner(2003), p.176. 녹색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인지이론과 선택모형(choice model)을 활용하여 독일과 영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함.

다섯째,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휴면마일리지를 녹색소비로 유인

- 현재 신용카드사에 적립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포인트가 해마다 1천억 원을 상회함. 이처럼 신용카드사의 휴면마일리지를 친환경 경제품의 소비로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신용카드사, 친환경상품 인증기구, 관련 정부기관 등의 공동 작업이 필요함.

<신용카드 포인트 연간 사용액과 소멸액>

(단위 :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포인트 잔액	1조1881억	1조3304억	1조4569억	1조5540억
사용액	3425억	4590억	7349억	9751억
소멸액	1250억	1211억	1572억	1380억

자료 : 금융감독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동 열 (3669-4112, dykim@hri.co.kr)
 연구원 유 선 기 (3669-4142, sunkiy@hri.co.kr)

<참고 문헌>

- 김선희(2008),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와 환경수도 콘테스트'
- 문승식(2009), '녹색상품의 개발현황과 과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발표자료.
- 배순영(2009),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의 역할과 과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발표자료
- kotra(2008),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Global Business Report 08-006
-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
- PWC(2009), 'Collection of Statistical Information on Green Public Procurement in the EU'
- National Geographic(2009), 'Greendex 2009: Consumer Choice and the Environment - A Worldwide Tracking Survey'
- Wagner, Sigmund A.(2003), 『Understanding Green Consumer Behavior』, ROUTLEDGE
- M., Jonk(2006),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2006 -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C
- Jozsef Szlezak(2007), 'National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SCP) Strategies in the EU', ETC/RWM, European Energy Agency
- Swede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Consumer Affairs(MAFCA; 2005), 'Think Twice! - An Action Plan for Sustainable Household Consumption', Government Communication 2005/06:107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3.0	2.7	0.7	0.7	-0.3	-0.3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5.1	-12.8	-12.4	2.3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18일	9월 25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46	3.38	-0.08%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1.32	91.33	0.05¥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703	1.4650	-0.0053\$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820	9,707	-113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444	10,544	10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37	4.41	0.04%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07.8	1,186.1	-21.7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699.7	1,691.5	-8.2p

주 : 9월 25일 해외 지표는 전일(9월 24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 18일	9월 25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71.92	65.84	-6.08\$
	Dubai	89.30	36.45	46.80	71.85	69.93	66.58	-3.35\$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59.99	251.25	-8.7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